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마지막 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9:1-11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25장(새 25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7번(새 10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 것을 명령하셨는데, 아직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남아 있는 죄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이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되고, 예수님처럼 내가 아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들어가는 길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당교회 성도들을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찾게 하시고 교회를 찾게 하옵소서. 이것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16:21-24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자기부인(1) -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봉 헌(offering) 360장(새 324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519장(새 461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 하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 다음 주 친교 후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4. 교우소식
 - 이화자권사님께서 금요일에 수술을 잘 받고 오늘 퇴원하십니다.
 - 장석순할머니께서 낙상으로 골반골절이 되어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믿음속]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헤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소망속] 고린도후서 7:1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의 혼과 육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구원은 반드시 왜곡된 신앙의 형태를 띠게 될 것입니다. 같은 신자이지만 속사람(영)이 변화되지 않으면 생각(혼)이나 가치관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인이면서도 신앙인 인양 행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하며 삽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말씀묵상〉 마태복음 16:21-24

21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1.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1-22절) 만일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2.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23-24절)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까?

❖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옛 자아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려는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고자 하던 사탄의 속성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자아를 자기계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목하에 끊임없이 자아를 부추기고 극대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옛 자아는 계발의 대상이 아니라 부인하고 죽어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처리될 곳이 바로 십자가임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는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보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내 육신에 속해 있는 생각과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기에 굉장한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영, 혼, 육 모든 요소에 옛자아의 흔적들이 남아있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자기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기까지 하는 무례함을 보입니다. 조금 전에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되심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을 때 이전의 베드로는 온데 간데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장 단편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져야 한다는 교만한 옛 자아가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옛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식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요! 이 땅에 살면서 매 순간 자아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